

파견기간	24-2	교환학생 귀국 보고서	학 번	2020-14040
파견국가	독일		소 속	공과대학 조선해양공학과
파견대학	Technical University of Darmstadt		성 명	위재영
아래 내용으로 본부 국외파견 교환학생 의무 사항인 수학 후기를 제출합니다. 서울대학교 국제협력본부에서 이를 OIA 홈페이지 게시 등 정보 공유 및 학생 안내, 홍보 등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출일자	2025 년 03 월 2 일			
지원자*	위재영 (위재영)			

(서명은 성함 타이핑으로 같음 가능하며, 수기로 수명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I. 교환 프로그램 참가 동기

입학했을 때부터의 버킷리스트가 교환학생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공부와 생활도 해보며 좀 더 넓은 시야와 사고를 갖고 싶었습니다.

II. 파견대학 및 지역 소개

1. 파견대학/지역 선정 이유

저는 저번학기 TU-Darmstadt 로 파견을 갔었습니다. 먼저 독일을 선택한 이유는 유럽대륙의 정중앙에 위치해 여행을 다니기에도 용이하고 생필품 물가가 저렴한점,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내는 학비를 제외하면 추가적인 학비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교환학생들은 도이칠란트 티켓이 나오게 되는데 독일의 고속철을 제외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상당히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여러 독일의 대학교 중 TU-darmstadt 를 선택한 이유는 제가 벤처와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은데 TU-Darmstadt 가 독일에서 가장 많은 스타트업을 배출하는 학교였기 때문입니다.

2. 파견대학/지역 특징

다름슈타트는 인구 10 만의 조용한 대학도시입니다. 프랑크푸르트 권역에 속해있고 TU-Darmstadt 를 제외하고도 많은 대학교들이 있습니다. 프랑크푸르트까지는 30 분, 마인츠, 하이델베르크 같은 도시까지 약 1 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III. 출국 전 준비 사항

1. 비자 준비

비자는 무조건 한국에서 받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독일에서 받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두세달은 가볍게 넘어가게 되는데 그럼 독일 외부 여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제가 파견 갔던 학교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여서 꼭 한국에서 받고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독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선 주한 독일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테어민을 꼭 잡아야 합니다. 테어민 예약은 약속 날짜 기준 3 개월 전부터 예약이 가능하니 무조건 미리미리 예약을 계속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수강신청을 방블케 할만큼 치열하니 여러 번 시도해야될 가능성이 큼니다.

2. 숙소 지원 방법

TU-Darmstadt 의 경우 기숙사 신청 메일이 이메일로 오게 됩니다. 해당 메일의 설명대로 진행하면 별로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최대로 낼 수 있는 기숙사비를 써넣는 칸이 있는데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방을 잡지 못할까봐 최대한 높은 가격도 지불 가능하다고 써넣었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3. 파견 대학 지불 비용(student fee, tuition fee, 기숙사 비용 등)

독일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으려면 이미 월 당 950 유로 어치 정도의 슈페어콘토를 이미 납부하셨을 겁니다. 정말 생활만 할려고 하면 그 이상의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TU-Darmstadt 의 기숙사비로 저는 450 유로 또 보험인 Tk 비용 130 유로 거기에 통신비 10 유로 정도를 하면 590 유로, 약 600 유로의 고정비용이 발생합니다. 물론 여기에 추가적으로 UNI Sport 라고 불리는 대학 체육 활동을 신청하게되면 종목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유용한 정보

처음 가실 때 꼭 국내 번호를 문자 수신 가능한 요금제로 해놓고 가셔야합니다. 독일에서 계좌를 파고 독일 유심으로 개통을 하셔야 되는데 개통을 할려면 독일 계좌가 필요하고 계좌를 만들려면 문자 수신 가능한 번호가 있어야됩니다. 저는 핸드폰을 처음에 아예 정지시키고 떠났다가 외통수에 걸려서 한참 고생했습니다.

IV. 학업

1. 수강신청 방법

TU-Darmstadt 의 경우 Tucan 이라고 불리는 수강신청 사이트를 통해서 수강신청을 하게 됩니다. 독일의 경우 특이하게 며칠간만 수강신청이 가능한게 아니라 학기 내내 언제든지 수강 신청 및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잘 골라야겠다는 부담없이 본인에게 맞는 과목을 여러 번 들어보며 찾으셔도 됩니다.

2. 수강과목 설명 및 추천 강의

Strategic Logistics Management

전략 물류에 대한 수업입니다. 물류의 여러가지 형태와 Cradle to Grave 에서 물류의 역할을 배울 수 있는 수업입니다.

Management of Engineering Design

엔지니어링 디자인에 대한 수업입니다. 한 기업이나 팀이 엔지니어링 디자인을 할 때 바운더리를 어떻게 잡아야할지, 어떻게 본인들의 엔지니어링에 대한 비평을 할지에 대한 방법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공대 수업이라고 단순히 모델링만 배우는 것이 아닌 제품을 둘러싼 모든 요소를 고려하며 어떻게 엔지니어링을 ‘관리’할지 배우는 재미가 있던 수업입니다.

Work Organizaiton in Intercultural Context

다문화 환경에서의 조직 문화 구성방법에 대해 배우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의 경우 참가자들이 모두 다른 국적의 친구들이였고 다른 나라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수업이었습니다. 기말 시험 대신 조별과제로 다문화 환경의 여러 토픽 중 하나도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Venture Valutaion

정말 인기 있는 수업 중 하나입니다. 벤처나 스타트업의 경우 기업의 가치평가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기 어렵기에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게되는데 그런 방법론을 배우는 수업입니다. 또 수업 중 하버드 스터디 케이스를 하게되는데 실제 기업들의 문제를 컨설팅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3. 학습 방법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시험의 기초가 작은 디테일에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진 것들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 것들에 대해 교수님이 언급하고 강조했던 지점을 잘 아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4. 외국어 습득 요령

TU-Darmstadt 의 경우 다른 학교들과 다르게 1 달간의 필수적인 집중 독일어 코스를 필수적으로 수강해야 됩니다. 한달간 매일 4 시간 동안 배우면 어느정도 기초적인 레벨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 개강 이후 코스까지 수강하게 되면 독일어가 아무리 처음이여도 A2 까지는 다다를 수 있습니다. 이왕 독일에 온거 A2 레벨까지는 충분히 배워갈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름슈타트의 경우 다들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먼저 독일어를 쓰면서 시작하는게 빨리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5. 기타 유용한 정보

V. 생활

1. 가져가면 좋은 물품

겨울학기의 경우 전기장판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2. 현지 물가 수준

생필품과 식자재 물가는 한국과 비슷하거나 조금 비싸다고 느껴졌습니다. 독일도 경제 상황이 별로 좋지 못해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이외 외식은 기본적으로 20 유로는 넘게 나오는 것이 평균적이라고 생각되며 맥주를 제외하면 그 외의 영화와 같은 문화 생활은 한국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3. 식사 및 편의시설 (식당, 의료, 은행, 교통, 통신 등)

TU-Darmstadt 의 경우 **Menza** 하고 하는 학생 식당에서 점심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맛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습니다. 의료는 제가 한번도 이용해보지 않았지만 무조건 테어민 (예약)을 잡아야 하기에 한국보다 훨씬 번거롭다고 들었습니다. 독일의 은행을 이용할 일은 많이 없을테고 주로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는데 N26 을 추천합니다. 다른 은행끼리의 송금은 1 일 2 일 정도 소요되는데 반면 N26 끼리의 송금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 번거로움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교통의 경우 교환학생이라면 도이칠란드 티켓을 받게될 건데 이를 사용하면 ICE 를 제외한 대중교통을 전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통신은 보통의 경우 저렴한 알디톡을 사용합니다. 근처 마트에서 손쉽게 유심칩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4. 학교 및 여가 생활 (동아리, 여행 등)

TU-Darmstadt 는 ISS 활동이 매우 활발한 학교입니다. 공지에 조금만 신경을 쓰면 매주 이벤트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여행과 같은 경우 프랑크푸르트 공항까지 30 분이면 바로 갈 수 있는 공항버스가 30 분 마다 있어서 여행가기도 매우 편리합니다. 다만 프랑크푸르트 한 공항의 경우 이름과 달리 거의 3 시간을 이동해야되고 추가로 왕복 40 유로 정도의 버스비도 지불해야하니 이 점 고려해서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안전 관련 유의사항

독일의 경우 치안이 안좋았던 경험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밤늦게 프랑크푸르트 중앙역 근처를 돌아다니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마약중독자나 노숙자들이 강도를 한다는 경험담을 몇 번 들었고 실제로도 가보시면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VI.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치는 소감

정말 짧게 느껴진 1 학기였지만 그만큼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였습니다. 다른 문화권에서 부딪쳐 살아보는 경험이 역설적으로 한국에서의 생활과 문화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경험이였습니다. 이번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배운 것을 삶에 녹여내는 것 까지가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호연지기를 계속 길러나갈 것입니다.